

경영자 교체와 '빅배스' 회계처리 왜 자주 일어날까?

Group 11 이준형 이해우 이휘서 임동현 임보미

목차

❖ 빅배스(Big Bath)의 정의

❖ 빅배스(Big Bath)의 특징

❖ KB국민은행 사례연구

- 은행의 특성 및 최고경영자 교체시기
- 최고경영자 교체시기별 빅배스 (2010년, 2004년, 1998년)
- 왜 유독 KB금융에서만 경영자교체시 마다 빅배스가 반복될까?

❖ NH농협금융지주의 빅배스

빅배스

Big Bath , 큰 목욕통

‘목욕해서 더러운 때를 씻어낸다’는
의미에서 유래된 용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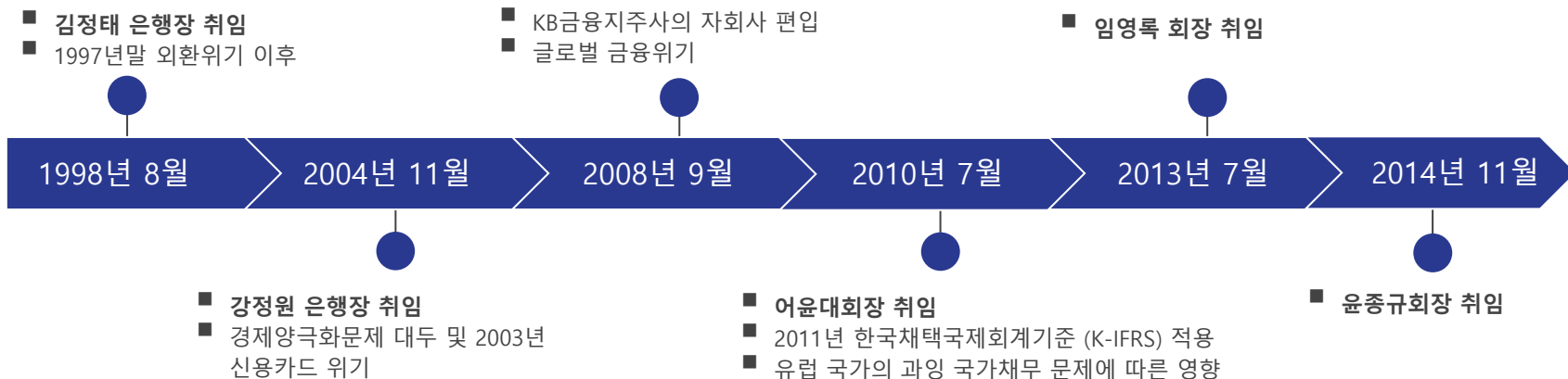
- 이익이 마치 U자 형태로 변하므로,
U자 형태로 생긴 큰 목욕통의 모습에
빗대어 표현
 - 회계처리방법이나 미래에 대한
회계추정을 변경해 하향조정하는
회계처리를 대규모로 수행하는 것
 -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
손실을 인지한 시점에 반영하는
‘보수주의’적 회계방식의 일종
-

빅배스(Big Bath)의 특징

빅배스 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당기이익은 크게 감소하지만, 미래 이익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■ 기업에 내재된 손실의 발생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■ 단기적으로 기업의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중장기적으로 재무성과를 개선
발생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최고경영자가 교체되는 기간에 전임경영자의 경영성과는 축소시키고, 신임경영자의 경영성과를 증가시키려는 의도로 최고경영자가 교체되는 기간에 빈번하게 발생
발생유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손상차손인식, 충당금 설정,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등을 통해 이익조정 → <u>많은 가정과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계정에 대한 손실인식</u>

※ 경영자의 재량으로 이익과 비용을 조정함에 따라 회계정보 투명성에 부정적 영향

KB국민은행 사례연구 : 은행의 특성 및 최고경영자 교체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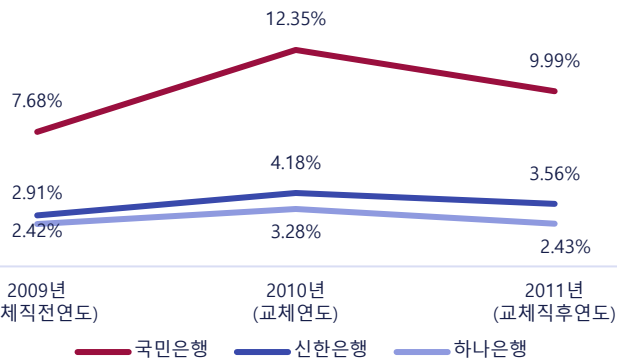


KB국민은행의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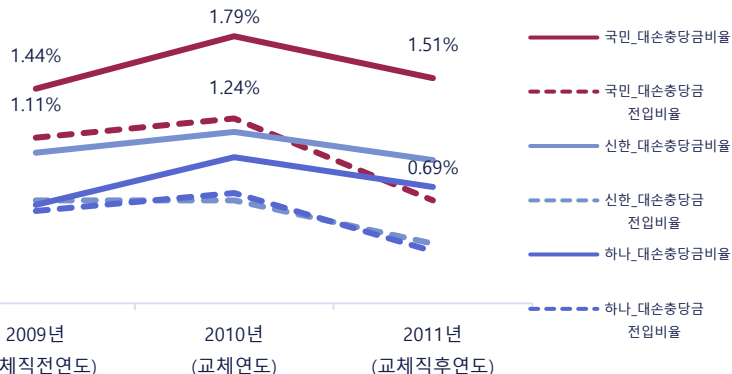
- 은행업은 내수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서 다양한 법령 규제를 받고 있으며, 위험관리와 투명한 경영 요구됨
-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으며, 1997년 IMF 구제금융 및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은행간, 금융업종간 경쟁 심화됨
- 은행 영업이익의 90%이상을 대출채권으로 인한 이익이 차지
- 특히, KB국민은행의 경우 최고경영자(CEO) 임명시 정치권의 영향을 받으며, 기업금융중심의 타은행에 비해 소매금융중심

KB국민은행 사례연구 : 2010년 최고경영자 교체시 빅배스

영업수익 대비 대손상각비



대손충당금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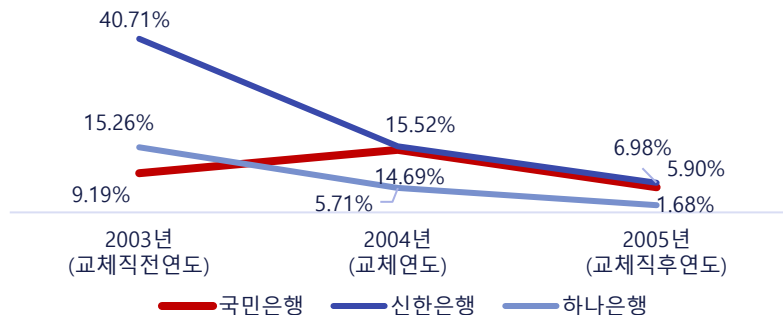


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유럽 일부국가의 국가 채무문제가 대두되면서, 은행권의 영업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
-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2009년 이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며, 대손상각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반해, 국민은행은 **2010년 대손충당금 비율 및 대손충당금 전입비율이 증가했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추세**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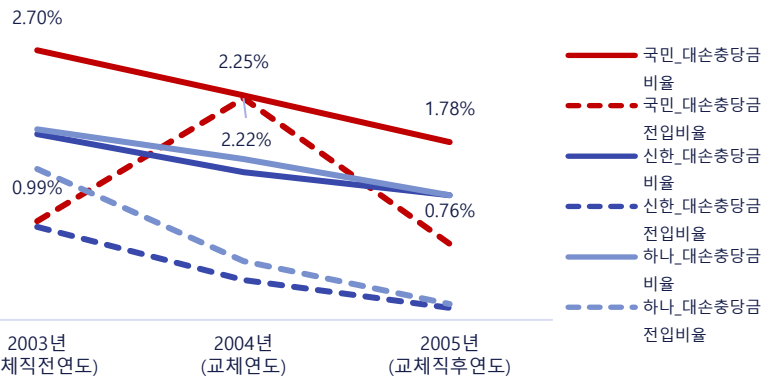
(주) 대손충당금비율 = 대손충당금기말잔액 / 대출채권기말잔액
 대손충당금전입비율 = 대손충당금전입액 / 대출채권기말잔액

KB국민은행 사례연구 : 2004년 최고경영자 교체시 빅배스

영업수익 대비 대손상각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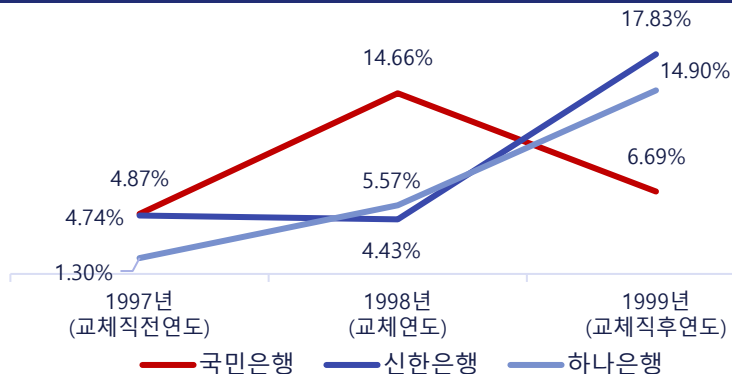
대손충당금 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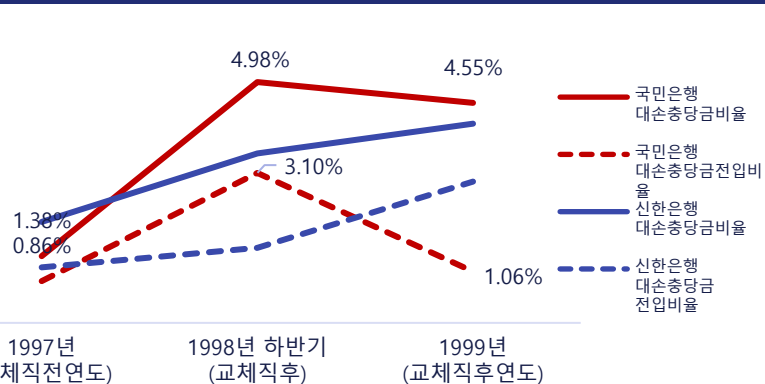
- 2003년 신용카드 사태로 인한 대손상각비 인식이 증가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
- 반면, 국민은행의 대손상각비율은 2003년에 비해 2004년(교체연도)에 증가
- 국민은행의 대손충당금 전입비율 역시 2003년(0.99%)에 비해 2004년에 2.22%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
→ 기중 당기 대손상각을 대규모로 함으로써 빅배스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론 가능

KB국민은행 사례연구 : 1998년 최고경영자 교체시 빅배스

영업수익 대비 대손상각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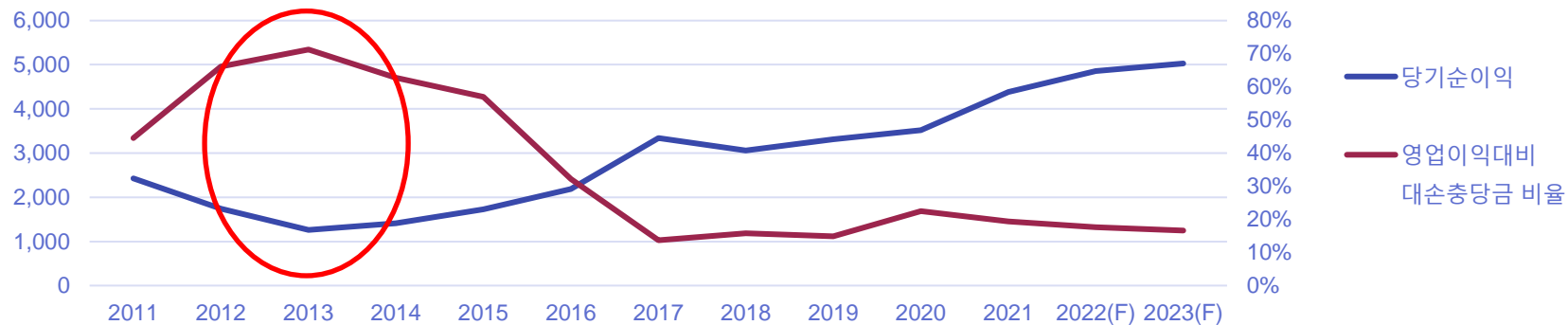
대손충당금 비율



- IMF의 여파로 1999년에 대손상각비율이 대폭 증가한 타 은행과 달리, 국민은행(전 주택은행)의 경우 **최고경영자 교체시기인 1998년에 대규모의 대손상각비를 인식**
- 주관적 판단이 개입가능성이 높은 기업대출금의 비율이 낮은 국민은행은 타 은행에 비해 **대손충당금의 조정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, 대손상각비를 크게 인식한 것으로 보아 빅배스로 판단 가능**

KB국민은행 사례연구 : 최근 최고경영자 교체시 빅배스

당기순이익 및 영업이익 대비 대손상각비



- 2013년 7월 임영록 KB금융그룹회장, 2014년 11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겸 KB국민은행장 취임 (2022년 현재까지 연임)
- 2013년 영업이익 대비 대손충당금비율이 상승,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→ 2010년 이후 최근 최고경영자 교체시에도 빅배스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.

왜 유독 KB금융에서만 경영자교체시마다 빅배스가 반복될까?

❖ 정치권의 영향력에 따라 CEO가 임명

- 전임CEO와 신임 CEO가 다른 정권에 의해 임명돼 단절
전임자에 대한 예우가 필요 없으며, 전임자의 경영실패를 손쉽게 탓할 수 있는 환경

❖ 대주주 부재로 CEO 견제 및 감독이 충분히 수행되지 못함

-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의 경우 대주주가 존재하며,
정치권의 영향력 행사가 제한적이며, CEO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.

NH농협금융지주의 빅배스

- NH농협은행의 2015~2016년 조선·해운 위험업종에 대한 부실여신 익스포저가 5조원대임에도 불구하고, 대손충당금이 충분히 쌓지 못해 부실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판단
- "적자가 나더라도 한번은 털어내야 빨리 회복할 수 있고, 누군가는 해야할 일 " 이라며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빅배스(big bath)감행함에 따라 2016년 부실채권 관련 충당금을 대폭 설정
- KB금융처럼 최고경영자의 교체로 인한 것이 아닌, 금융지주 차원에서 NH농협은행 실적관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
- 빅배스 단행 이후 최대 규모의 인사와 비상경영체제를 돌입함으로써 흑자전환을 달성하고,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함으로써 긍정적 평가를 받음

